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3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부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9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16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8/23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8/30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8/2	\$ 340.00	\$ 115.00	\$ 500.00

레지오 마리아에 활동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에 에서 신청가족에 한하여 방문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가정이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라라 자매님
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쾌유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사랑이시다.

김향신 마리아•강지형 요셉 | 조셉의 커피나무

잊을 수 없는 어느 이른 여름날,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교황님 방한 때
예물 봉헌 가족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던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멀뚱히 바라보며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내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너무도 부족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선물에,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기도드리는데 내내 눈시울을 붉혔고,
더없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축복이기에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왜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환한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딸의
결혼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큰딸 결혼식 때는
한복과 양복을 빌려 입었는데, 이번에는 마음먹고 큰딸이 골라 준 옷과
구두를 사고, 두 딸 예은이와 세은이에게도 꼬까옷을 사 입혔습니다.
우리 집은 기도와 은총에 대한 감사함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리도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황홀했는지, 하느님께
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광화문의 온 광장을 채운 신자들의 맨 앞
제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새 들떴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치
조용한 호숫가에 소풍온 것처럼 평온하고 한가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양지바른 담장 아래서 봄별을 쬔고 있는 듯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마음이 천국일까?'

미사가 시작되고 차례가 되어 우리 가족은 제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습한

공 동 체 소 식

소공동체 구역모임: 8/16 (주일) '오전 8시 주일미사' 후

8월 셋째 주일인, 8월 16일 주일 미사후 소공동체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한인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9/8(화) 저녁 8시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9월 8일(화) 저녁 8시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9월 성체조배: 9/3(목) 저녁 6시 30분

성체 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화요일 저녁 7시

현재 예비자 교리반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예비자 교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평협 임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예비자를 위한 기도

예비신자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공지사항 관련

주보에 공지하실 내용(공동체 행사, 경조사, 기타 소식 등)은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시고, 늦어도 목요일 오전까지 알려주시면 해당 주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후의 공지사항은 다음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손 아놀드. ys7son@gmail.com 또는 661-301-8243).

대로 교황님께 빵과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교황님께서 갑자기 몸소 아래 계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살피주는
사랑과 배려의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벅찬 마음에 눈시울이 촉촉해
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가족을 아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온통 사랑이시구나!'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강하고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평생
그 시간과 느낌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참으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가정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느끼며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울주보에서>